

지원·시설 부족...지속적 논의 필요

✓ 불교계 여성복지 실태와 과제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女性變性成佛).’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女人即身成佛).’
 여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불교교리. 현재, 불교계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불교사회복지영역에 분명한 ‘여성복지’라는 분야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또한 ‘여성복지’는 여성정책과 접합되어 그 정체성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는 여성복지가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지 한 세미나를 통해 살펴봤다.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는 11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성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복지 현황과 방향은 물론 한국불교·일본불교·기독교·가톨릭여성복지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이어졌다.

(재)청호불교문화원 이종욱 이사장은 “우리사회는 문화지체현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직·간접 행위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며 “경제적·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로부터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을 마련, 국가와 종교단체를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세미나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복지의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복지’다. 여기서 ‘복지’라는 말부터 다시 새겨봐야 한다. ‘복지’는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제도 등을 모두 총칭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여성복지란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회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전장으로 양산된 홀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여성복지가 시작됐다. 이후 윤락여성, 미혼모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단편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여성복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990년대에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도입되면서부터 여성복지의 대상은 오보호(要保護) 대상자에서 일반여성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현재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까지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성가구조,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킬만한 복지정책도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이 아쉬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종교 사회복지의 존립이유가 바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세심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상자들에게 ‘맞춤식 복지’를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즉, 불교계에서 여성복지에 관심을 가

져야 하는 이유는 관료화된 국가기관의 개입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여성복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도 기조 발표를 통해 “여성복지 분야가 종교복지 체계 내에서도 타 복지분야보다 사업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다”고 진단하며 “여성복지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장애인 여성복지에 종교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간다면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불교계 직영 여성복지시설 3곳에 불과 여성이용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全無

여성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복지’다. 여기서 ‘복지’라는 말부터 다시 새겨...

사실 불교여성복지시설은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활발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설을 살펴보면 결과는 참담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임해영 연구원이 발표한 이날 논문은 따르면 2006년 6월 기준 사회복지재단 산하 단체가 477개인데 이 중 여성복지시설은 단 10개다. 이는 국가에서 설립해 위탁운영을 맡긴 결혼이민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복지’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종교계 여성복지를 되돌아 보는 세미나가 11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터들 모두 포함한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실질적으로 불교계에서 직영하는 여성복지시설은 ‘자비의 심터(갑천복지재단)’, ‘화엄동산(사단법인 선우)’, ‘나눔의 집(사단법인 나눔의 집)’ 3개소 뿐인 셈이다.

지 않고 있다. 불교계 여성복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성기관들이 서로 연대하지 못해 인프라 구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복지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토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여성에 관한 것은 복지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여성복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복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여성복지활동을 전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스님들은 현장 활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불교 교육 가치를 살려 전통적 가족 기능이 상실된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여성복지 찾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뇌종양과 힘겨운 사투 벌이는 열두살 준범이

생명나눔, 11월의 환우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11월의 환우로 준범(12)이를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준범이는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렸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 넘겼지만 그것은 뇌간의 악성신생물, 즉 뇌종양의 전조 증상이었다. 입원과 동시에 특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치료하는 중에도 종양은 계속 커져갔다. 그러다 희망이 썩었다. 한방 항암치료와 침구치료로 전환한 뒤 종양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준범이 어머니는 그동안 치료비로 1400만원의 지출했다.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한 달에 300~4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 정부 보조금 68만원으로는 생활하기가 벅하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준범이에게도,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해 준 어머

니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때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④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

한국불교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소홀한 분야가 있다. 바로 장애인복지다. 불교사회복지 중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신상생 사무국장:조석영) 그가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이다.

“장애인 복지에 더 큰 관심을”

“전 별로 재미없는 사람인데...”
 민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하는 조 국장은 정말 진지한 복지맨이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1989년 서울 정신지체인복지관을 시작으로 18년이 넘는 시간을 장애인복지에 매달려왔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8월에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대학원도 졸업했다. 실무경험으로나 학문으로나 베테랑이라 할만하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제 속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안동 집 근처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어 그곳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 국장이 중학교 2학년이던 무렵, 한창 새마을운동이 일어 시골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재건축하던

18년 이상 장애인복지 분야 외길

경험·노하우 담은 책 집필 준비도

페인트에 손을 내밀 때였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제 속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안동 집 근처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어 그곳을 보고 자랐거든요.”

“한창 예민한 때라 방향도 좀 헷췌. 하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시더라고요. 그 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한 길만 보고 한 걸만 걸어온 그가 불교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불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 국장의 할머니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가실 때 뒤에서 쌀을 들고 10리를 함께 걸어다닌 인연이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까지 연결된 것이다.

자신도 불자이기에 항상 복지관에서 불교식 프로그램을 총 동원하

려 애쓰는 조 국장.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장애인들이 사람이나 불교장어인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들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라고 한다. 사찰도 불교계도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일까. 꼼꼼한 성격으로 복지관 설립을 행하는 그는 이용자들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 생각한다.

“복지의 평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그는 요즘 장애인복지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다. 1993년부터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며 쌓은 장애인복지 노하우를 그냥 묵혀두기 보다 불교계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단다.

“‘불교장애인복지 개론서’를 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분야는 불교계가 후발주자다 보니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미력하나마 조금씩 제 노력의 결과로 불교장애인복지자료로 축적해놓으려고 합니다.”

김강진 기자

佛心

성불화 만트라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 보면 잘못 들어 놓은 발로 공방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보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륜륜상(千輪輪相)과 만트라(曼陀羅)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특별할인가격 79,000원

신발의 특징

- ▶만트라(曼陀羅)는 울마니 반매홍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생긴다고 한다.
- ▶만트라(曼陀羅) 울마니 반매홍 성불화는!
- ▶발아치 보강 기능
- ▶체중 분산기능
- ▶충격 흡수기능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기법고 폭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습제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진산겔 · 진산고 특별할인판매

진산겔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산은 인삼에서 추출한 소량의 신물질로서 적은 생산량과 고가의 가격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으나 금번 고농축의 진산겔이 출시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진산고와 겔을 구입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명품종의 명품 가족! 건강! 생명!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진산**

80박스 한정판매 **진산고 (20)** **20세트 한정판매**

특허권소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면역학연구소

미 국 특허번호 (제 6555272호)
 한 국 특허번호 (제 144130호)
 한 국 특허번호 (제 0361187호)

인삼 1톤에서 30kg 정도의 극히 적은양 만이 추출되는 인삼 다량체로서 국내 유일의 신물질 과학기술부 ‘진산’ 실용화 과제(대형 생신기술 개발) 공동연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인삼 다량체를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주)코인텍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으로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제조회 (주)코인텍
 구입문의 080-838-2500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형은 지금 - 옷 안다는 참옷 최초 개발
- SBS 고형은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다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쓰면 약이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2006.8.20 KBS 상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2006.10.31 KBS 무한대첩 - 협찬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식품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080-838-3366